

1. 인상주의-빛과 색채의 향연

우리는 사람의 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 이를테면 그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식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격언도 있다. 이처럼 사물의 본질은 쉽사리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사물에 대한 인상은 그것이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감각적이다.

이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보다는 변화무상한 인상을 그린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인상을 변하게 하는 주범으로 빛을 꼽는다. 그들은 사물이 불변의 고유색(자연색)을 가진다는 사실을 의심한다. 사물의 고유색(자연색)은 알고 보면 무수한 빛의 색점들(그러므로 광점들)이 사물의 표면에서 혼합한(상호작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빛의 밝기와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물의 색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빛의 파장이 고정된 것이 아니듯 사물의 색채 역시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빛의 광점에는 무채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파렛트로부터 검은색과 흰색을 추방한다. 꼭 무채색을 사용해야 할 때는, 예컨대 음영을 그릴 때는 원색을 혼합한 색점들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러한 빛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충실히 실천에 옮긴 화가로 클로드 모네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그의 「루앙성당」과 「건초더미」, 그리고 말년의 「수련」 연작은 빛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똑같은 대상을 색채를 바꿔가며 연작으로 그렸다.

한편으로 빛의 광점들이 사물의 색채는 물론이거니와 형태마저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한, 빛에 대한 인상주의의 관념을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경우를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와 시냐의 점묘화법에서 엿볼 수 있다. 쇠라의 「그랑자드의 휴일」과 「먹감는 사람들」에서는 사물의 윤곽선이 선으로 표현되는 대신 철저하게 중첩된 색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묘화법은 점묘법 또는 분할주의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형태를 점으로 묘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상주의는 반 고흐와 폴 고갱, 그리고 폴 세잔을 포함하는 후기인상주의를 아우른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후기인상주의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와 시대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상호간 영향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흔히 이 세 사람은 현대미술과 관련해 의미 있는 계기를 연 화가들로 간주 된다. 반 고흐는 빛의 색점과 파장이 표현하는 운동성을 극대화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표현주의의 장을 열었다. 폴 고갱은 색점을 색면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색면주의 화파의 장을 예고했다(나비파와 클레멘테 그린버그의 뉴욕 색면화파).

그리고 세잔은 흔히 입체파를 예고한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사물의 항구적인 본질을 추출하려 한 점이다. 이처럼 사물의 항구적인 본질을 추출하려는 세잔의 발상은 인상주의의 변화무상한 인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의 회화와 정 반대편에 서 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 대상은 원통과 원뿔과 같은 최소한의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할 수 있다는 세잔의 말은 변화무상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항구적인 본질, 그러므로 구조를 추상했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자로서의 일면을 엿보게도 한다.